



고 재 형
(전자·4)

것이 나의 요지이다. 대의원
나 선관위에서는 다음 선거
에 일을 참고해 주길 바란
다. 약법도 법이라지만, 모두가
임할 수 있는 법이라면 약법
과 예기도 통용 필요가 없을

△21일자 1면 '이번주 총학
회장 투표'기사중 2백64명이
반대표와 4면 '산대 단독후보
선서'동자부고중 반대 5백60표

독 지 투 고

그 아 그리에 대해 죽음에 담뽀는 자리에 있어
다들 다들 발은 발을 뒤흔들었다. "인간들
그구의 경우와 같이 비결정성을 위조하지
나 조직적인 세습을 통해 한 사람의 터
만 있다. 만약 다른 지역에 있어 있다
면 책임을 지겠다"고. 그런데 세습도
경우원들의 죄에 있어서는 인간들 위
경우보다 더 대단하고 뻔뻔스러운 것이
사건에 대해 장난은 인간보다도 없다. 단
이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뻔뻔했는지도, 단지
사건에 있지 못했는 이유만 들면 책임을
회피하고 있는 것이다. 한 나라의 내부무
관조차도 사건의 책임을 책임지지 않는
것이고보니 정말로 당사자인 세습도공무원
들마저도 너무도 뻔뻔해서 자신들의 잘못
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. 잘못한 자
는, 못마땅한 조상만 있는 식이다. 도둑들은
같이 모여들고 내게만 잘못 댈까싶은 것
이다. 모두들 책임이 없는 착상 고질병에
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. 범죄자들에

바로서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

경각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, 유물
도발정책을 낳고, 비슷한 유형의
건사고가 매일매일 되풀이 된
.....
생각하기조차 싫은 사회다.
하지만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
고쳐야 하는 사회는 그들에게 그런
무엇은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.
학생은 선조에게 물려 받은 것
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 온 것
고 한다. 의미심장한 한디가 시
수 없다.
타인집을 옮겨가는 시론 기사
루크로움을 느끼며, 이 사회는 한
디보다 한디는 생각을 하고.
선조도 인간성도 정치도 후려
....., 바로 서야 할 것들이 너무
다. 결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이
기를 바란단.

세계 컬러 TV 7대중 1대는 삼성전관의 브라운관 —
우리 하국의 세계 1위 자부심을 지구촌 곳곳에 전합니다.

